

韓國經濟의 高度成長과 不均衡成長

趙 德 九

<高大經濟研究所>

目 次

1. 序 言
2. 高度成長의 問題點
3. 不均衡成長의 問題點
4. 結 言

1. 序 言

經濟內的 또는 外的인 요인에 의하여 沈滯되 있던 韓國經濟는 60 년대에 이르러 靑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69 년의 15.5%라는 높은 成長率은 韓國經濟史上 처음 보는 수확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高度의 經濟成長은 순수한 國內貯蓄에 의하여 이룩된 것이 아니고 半以上の 海外貯蓄에 의하여 달성되었으며 產業間에 심한 不均衡을 초래 하였던 것이다. 本稿에서는 韓國經濟의 高度成長과 不均衡成長의 문제점들을 각종 통계에 의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2. 高度成長의 問題點

韓國經濟는 최근 數年間 의욕적인 經濟政策에 힘 입어 높은 成長率을 나타내고 있다.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5 년 不變市場價格을 기준으로 할때 1962 年까지는 經濟成長率이 年平均 5% 미만에 불과하였으나 1次經濟開發 5 個年計劃의 1次年度가 끝난 다음 해인 1963 년부터는 年平均 10.7%라는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높은 成長率을 世界 各國의 成長率과 비교하여 보면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0 년 이전까지는 世界各國과 별 차이가 없

<表 1> 年度別 成長率
(1965年 不變市場 價格)

年 度	成 長 率	年 度	成 長 率
1 9 5 4	6.0	6 2	3.5
5 5	6.1	6 3	9.1
5 6	1.2	6 4	8.3
5 7	8.8	6 5	7.4
5 8	5.5	6 6	13.4
5 9	4.4	6 7	8.9
6 0	2.3	6 8	13.3
6 1	4.2	6 9	15.5

資料：韓國銀行 統計年報, 1970

나 1960~64 年間に 있어서는 世界 전체가 4.8%, 先進國이 4.8%, 後進國이 5.1%, 대만의 경우에는 9.6%인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5.5%로서 대만보다 저위에 있었으나 다른 여러나라 보다는 높은 성장률이었다.

이와 같이 높은 經濟成長率은 그 投資財源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表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海外貯蓄에의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이다. 즉 投資財源의 內譯을 보면 1953 年에서 1968 年까지의 總投資는 1,424 십억원으로서 이중 47%에 해당하는 677 십억원이 國內貯蓄에 의하여 조달되었으며 48.7%에 해당하는 694 십억원이 해외저축에 의하여 조달되었다(3.7%는 統計上 不一致).

여기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國內貯蓄中 63.1%가 再投資이고 新投資는 36.9%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일찌기 「J. Tinbergen」은 自發的인 國內貯蓄과 租稅가 所要投資率에 미치지 못할때는 外國援助(借款)를 얻도록 노력하든가 목표를 낮

<表 2> 經濟成長率의 國際比較 (單位: %)

國 別	期 間	成 長 率
世 界	1954—60	3.6
“	1960—64	4.8
“	1966	5.4
先 進 國	1954—60	3.4
“	1960—64	4.8
“	1966	5.4
後 進 國	1954—60	4.7
“	1960—64	5.1
“	1966	3.6
美 國	1950—60	3.2
“	1960—66	5.0
英 國	1950—60	2.8
“	1960—66	2.8
西 獨	1950—60	7.9
“	1960—66	4.5
日 本	1946—55	8.9
“	1956—63	9.7
비 울 빈	1955—60	4.5
“	1964—66	9.5
“	1960—66	4.8
터 키	1950—60	6.3
“	1960—64	4.6
“	1965—66	6.9
대 만	1952—56	6.9
“	1956—60	7.5
“	1960—64	9.6
“	1952—66	8.3
韓 國	1954—60	4.7
“	1960—64	5.5
“	1960—66	7.7
“	1964—66	9.7

資料: UN Statistical Year Book 1967

<表 3> 投資財源의 調達 (1953—68)

內 譯	(經常市場價格) 金額(10억 원)	構成比(%)
總 投 資	1,424.18	100.0
國 內 貯 蓄	677.59	47.6
(純 貯 蓄)	(250.14)	(36.9)
(資本消耗充當金)	(427.45)	(63.1)
海 外 貯 蓄	694.01	48.7
(純 借 款)	(218.71)	(31.5)
(純 移 轉)	(475.30)	(68.5)
統 計 上 不 一 致	52.58	3.7

資料: 韓國銀行, 統計年報 1969

추는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후진국이 經濟發展을 위하여 外國資本 즉 海外貯蓄에 의존하는 것이 二次大戰以後 國 體經濟에서 하나의 유행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그 依存度가 과중할 때는 健全한 經濟發展을 위하여 그렇게 소망스러운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1947년부터 1969년까지 외국에서 받은 援助額은 무려 40억弗이 넘고 1958년부터 시작된 外資導入額(借款)은 70년 7월말 현재 27억 2천 7백만弗(確定額)이나 되는 실정이다.

이와같이 많은 外資가 韓國經濟의 成長過程에 투입되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資本形成이 부족하다는 것을 實證的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다른 後進國과 마찬가지로 所得增加에 先行되는 資本蓄積이 不足한 것이다.

「M. Weber」는 과거의 선진국에서는 소득증가에 선행된 初期의 資本蓄積을 근면과 節約 즉 消費抑制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고 말한다.

그러나 「R. Nurkse」에 의하면 오늘날의 後進國에 있어서는 消費抑制을 강요할 계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소비를 장려하는 계기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後進國에서는 「W.S. Duesenberry」가 말하는 「展示效果가 작용하여 오히려 消費性向이 높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R. Nurkse」가 지적한 바와 같이 높은 消費性向때문에 國內貯蓄에만 經濟成長에 필요로 하는 投資財源을 전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문제는 成長만을 위한 海外貯蓄이 과중할 때 派生되는 經濟內的 또는 外的事實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에 우리나라의 總投資率과 그 財源을 세계 각국과 비교하여 보면 <表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投資率에 있어서는 필리핀보다 높을 뿐 他國에 비하여 낮고 國內貯蓄率은 제일 낮다. 또한 先進國의 과거 投資財源의 구성을 보면 <表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나라가 國內貯蓄에서 投資財源을 조달하였던 것이다.

즉, 1887~1906년간에 있어서의 日本의 경우와 1861~80년간의 이태리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오늘날의 先進諸國은 과거의 成長過程에서 投資財源의 조달을 거의 國內貯蓄에 依存하였으며 오히려 海外投資까지 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이 美國, 英國, 이탈리아, 日本 등의 先進國들이 그들의 초기의 經濟成長過程에서 投資財源의 전부를 國內貯蓄에 의존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자본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였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先進國들의 資本調達方法을 생각할때 우리나라의 그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으나 再考할 점이 있다고 하겠다.

3. 不均衡成長의 問題點

[J. Tinbergen]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高度成長을 위하여는 外資導入이 필요하나 이것은 일반적으로 産業 및 經濟 전체의 不均衡構造를 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왜냐하면 外資導入은 劣勢産業인 農業보다 工業에 그리고 中小企業보다 大企業에 투입될 성질을 가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高度成長도 소위 産業間, 地域間 그리고 個人間에 심한 隔差를 露呈시켰다.

여기에서는 紙面關係上 産業間的 격차만을 고찰하기로 한다. 먼저 우리나라 國民總生産의 產

<表 4> 國民總生産의 産業別構成比 (1965年 不變市場 價格) (단위: %)

年 度	國民總 生 産	農林漁業	鑛工業	社會間接 資本및기 타서비스
1 9 5 3	100.0	48.2	8.8	43.0
5 4	100.0	49.0	9.6	41.4
5 5	100.0	47.2	11.1	41.7
5 6	100.0	44.2	12.8	43.0
5 7	100.0	44.1	13.2	42.7
5 8	100.0	44.6	13.5	41.9
5 9	100.0	42.3	14.1	43.6
6 0	100.0	41.4	15.1	43.5
6 1	100.0	43.8	14.9	41.3
6 2	100.0	39.7	16.7	43.6
6 3	100.0	39.1	17.8	43.1
6 4	100.0	41.9	17.3	40.8
6 5	100.0	38.7	19.5	41.8
6 6	100.0	37.9	19.8	42.3
6 7	100.0	32.8	22.3	44.9
6 8	100.0	29.4	24.8	45.8
6 9	100.0	28.1	26.1	45.8

資料: 韓國銀行, 統計年報 1970

<表 5> GNP에 대한 投資率과 그 財源

(1960—1965) (단위: %)

國 別	總投資率	國內貯蓄率	海外貯蓄率
韓 國	14.1	3.5	10.4
美 國	17.5	18.5	-1.0
英 國	17.8	18.1	-0.2
西 獨	26.8	28.1	-1.4
日 本	36.5	36.2	0.3
카 나 다	23.5	21.6	1.9
노르웨이	30.3	27.5	2.8
알 제 켄	20.4	19.6	0.8
머 마	17.9	17.0	0.9
대 단	19.6	15.6	4.2
이스라엘	29.1	13.8	15.3
필 리 핀	13.1	11.7	-1.0

註: 總投資率이 國內貯蓄率과 海外貯蓄率과의 合計와 不一致한 것은 統計上 不一致 때문
資料: 韓國銀行, 國民所得年報 1968

<表 6> 主要國의 投資財源의 推移 (단위: %)

區 分	總投資	國內貯蓄	海外貯蓄	GNP에 대 한 投資率
英 國				
1860—79	100.0	133.0	-33.0	9.4
1880—99	100.0	146.4	-46.4	8.4
1900—14	100.0	160.9	-60.9	8.7
1921—29	100.0	133.8	-33.8	6.8
1950—58	100.0	104.5	-4.5	15.5
이 태 리				
1861—80	100.0	85.0	15.0	10.0
1881—1900	100.0	100.0	0.0	10.8
1901—1910	100.0	108.8	-8.8	15.9
1921—1930	100.0	87.8	12.2	18.1
1950—59	100.0	95.2	4.8	20.8
美 國				
1869—1888	100.0	95.6	4.4	20.6
1889—1908	100.0	102.3	-2.3	21.4
1909—1928	100.0	110.9	-10.9	18.4
1929—1938	100.0	103.3	-3.3	12.3
1946—1955	100.0	105.2	-5.2	17.3
1950—1959	100.0	102.8	-2.8	17.9
日 本				
1887—1906	100.0	79.2	20.8	10.1
1907—1926	100.0	95.7	4.3	14.1
1927—1936	100.0	96.2	3.8	15.9
1950—1959	100.0	102.7	-2.7	29.4

資料: Simon Kuznets, Modern Economic Growth 1966

業別構成比를 보면 <表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3년에는 農林漁業 48.2%, 鑛工業 8.8%, 社會間接資本 및 기타 서비스 43.0%이었던 것이 1970년에는 農林漁業 25.8%, 鑛工業 28.1%, 社會間接資本 및 기타 서비스 46.1%로 産業構造가 변화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農林漁業의 계속적인 減退와 鑛工業의 증가 그리고 社會間接資本 및 기타 서비스의 증가라는 점이다. 다음에 産業別成長率을 보면 <表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4년에서 69년間 年平均成長率은 農林漁業이 3.9%, 鑛工業이 15%, 社會間接資本 및 기타서비스가 7.8%로서 一次産業보다 二·三次産業의 성장률이 훨씬 높은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우리나라의 經濟成長率은 주로 鑛工業과 社會間接資本 및 기타서비스業에 의하여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鑛工業의 높은 構成比 또는 성장률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나 社會間接資本 및 기타 서비스部門의 높은 構成比나 成長은 실질적인 價値創造 즉 先進國의 경우와 같이 경제성장애 의한 電氣, 水道, 衛生, 運輸, 保管, 通信業 등의 社會間接資本部門의 成長이 아니라 工業原料의 높은 對外

<表 7> 産業別成長率
(1965年不變市場價格) (단위: %)

年 度	農林漁業	鑛 工 業	社會間接資本 및 기타서비스
1954	7.7	16.4	2.0
55	2.3	22.0	6.9
56	-5.3	17.0	4.4
57	8.6	12.5	7.9
58	6.8	7.7	3.6
59	-1.1	9.3	8.6
60	0.1	9.2	2.2
61	10.1	3.2	-1.1
62	-6.0	15.7	9.1
63	7.2	16.5	8.1
64	16.2	5.4	2.3
65	-0.9	21.1	10.1
66	11.0	15.2	14.8
67	-5.5	22.9	15.4
68	1.2	25.9	15.9
69	10.7	21.3	15.5

資料: 韓國銀行, 統計年報 1970

依存性이나 不動產 投機 그리고 過多消費 등에 의한 都小賣業, 金融保險, 不動產, 住宅所有 등 서비스業의 증대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것은 우리나라 經濟成長의 기형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

1969년의 社會間接資本 및 기타 서비스의 구성비를 보면 社會間接資本이 12.9%이고 기타서비스가 32.9%로서 우리나라 三次産業의 72%를 서비스 部門에서 차지하고 있으며 全體産業의 32.9%를 占有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産業構造는 農林漁業의 減退와 鑛工業의 成長 그리고 서비스業의 異常的인 비대화라는 不均衡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William Petty」는 經濟進步에 따르는 各産業間의 비중의 변동에 관하여 農業보다는 製造業이 製造業보다는 商業이 유리하다고 언급하였으며 「Colin G. Clark」나 「Simon Kuznets」는 일국의 산업을 一次, 二次, 三次産業으로 구분하고 경제진보에 따라 一次産業에서 二次産業으로 二次産業에서 三次産業으로 그 비중이 커진다고 하였다.

이것은 經濟成長에 따라 産業構造가 農林漁業의 비중 低下와 鑛工業과 社會間接資本 및 기타 서비스의 比重上昇으로 變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O. Hirschman」은 後進國 開發에 있어서는 貧困의 타개보다는 매장된 資源을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문제이며 資源의 개발로 經濟發展에 가장 중요한 것에 우선적 순위를 두는 것이 效果的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H.W. Singer」는 後進國을 동시에 개발하기에는 資源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였다.

즉 이들에 의하면 後進國은 資源 및 資本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부문에 投資하면 成長效果가 적으므로 중요한 産業部門에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特定部門이 優先發展하면 他部門은 이에 의하여 발전된다는 不均衡成長論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産業間의 不均衡이 심화될 때 一部門의 産業發展은 미발달된 産業部門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一例로서 공업의 발달은 國內市場의 발달을 필

<表 8> 國民總生産 産業別 構成比 國際比較
(1965年度) (단위: %)

國 別	農林漁業	鑛 工 業	社會間接資本 및 기타 서비스
韓 國 a)	28.1	26.1	45.8
알 켈 켈	16.6	35.2	48.2
호 주 b)	12.2	30.3	57.5
버 마 c)	32.7	16.0	51.3
카 나 다	6.5	30.6	62.9
대 만	26.0	21.4	52.6
西 獨	4.4	45.0	50.6
이스라엘	8.8	25.2	66.0
日 本	11.8	28.7	59.5
노르웨이	8.8	27.7	63.5
필 리 핀	33.5	20.0	46.5
터 키	35.9	17.0	47.1
英 國	3.5	37.9	58.6
美 國	3.6	31.6	64.8

註: a)는 1969 b)c)는 64年 統計
資料: 韓國銀行, 國民所得年報 1968

으로 하는데 農業의 質的인 감퇴로 인한 農村 購買力의 감퇴는 國內市場을 상대적으로 축소시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S,Kuznets」나 「O,Staley」 등은 産業近代化를 저지하는 요인으로서 內部的인 요인과 外部的인 요인(先進工業國과의 경쟁)을 들고 內部的인 요인으로서 國內市場의 狹少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經濟成長은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서 볼때 완전한 不均衡成長論에 치우친 감이 많다. 우리나라의 産業構造가 先進國型을 向하여 발전하고 있는 것은 소망스러운 일이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GNP 構成面에 불과한 것이고 就業 構造面에서는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所得隔差 등의 심각한 不均衡문제가 나타나는 것이다. <表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産業은 世界先進, 中進國들의 類型에 접근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一次産業인 農林漁業의 예를 보면 構成比는 1969년 현재 28.1%인데 반하여 同部門의 就業者數는 무려 54%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一次産業의 低生産性과 低所得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均衡的인 經濟成長이 요

청되는 것이다. 물론 二·三次産業에서 一次産業의 過剩人口를 完全雇傭水準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된다면 문제는 없다.

4. 結 言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韓國經濟가 高度成長을 短期間內에 示顯한 것은 外資에 힘입은 바 큰 것이다. 그러나 經濟成長에 필요한 所要資本 即, 投資財源을 海外貯蓄에 의존하는 것은 건전한 經濟發展을 위하여 그렇게 소망스러운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消費를 될수록 억제하고 展示效果의 작용을 최대한 막음으로써 가능한 國內貯蓄을 최대한으로 동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産業內의 不均衡成長보다는 均衡적인 成長이 긴 안목으로 볼 때 바람직한 것이다. 「R, Nurkse」에 의하면 後進國은 빈곤의 惡循環으로 인하여 구매력이 적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産業에 集中投資해서 생산을 증대시키더라도 他産業部門의 購買力을 증대시키지 않으면 그 産業은 販賣市場이 狹少하여 발전이 저지된다. 그러므로 어떠한 産業에만 投資할 것이 아니라 여러 産業을 동시에 발전시켜야 購買力을 증대시키고 상호의 수요를 크게 한다는 것이다.

즉 그는 投資와 發展은 國內需要에 대응할 수 있도록 一群의 補完的 産業에 동시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상호 市場을 제공하고 상호 補完해 나갈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동시에 多面的 諸産業의 均衡의 발전을 강조하는 것이다. 한 예로서 우리나라의 一次産業은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二·三次産業에 비하여 매우 낮은 비중을 지니고 있다.

現時點에서 볼때 한국의 一次産業은 工産物의 國內市場 確保를 위해서라도 그 開發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다. 不均衡的이고 外資依存도가 높은 高度成長 보다는 成長率이 약간 낮더라도 均衡的이고 國內貯蓄에의 의존이 높은 착실한 경제성장인 韓國經濟의 장래를 위하여는 바람직한 것이다.